

2010년 봄호

춘풍들이 일구어 가는 복지공동체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부설기관

- 대구쪽방상담소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 만평주민도서관

356-0465

356-3494~5

356-0463~4

356-0468



- 대구쪽방상당소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 만평주민도서관

356-0465

356-3494~5

356-0463~4

356-0468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 체 게바라 -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누구를 미치광이라 부를 수 있겠소?
꿈을 포기하고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미친 짓이겠쥬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을 찾는 것이 미쳐보이나요?
아뇨! 너무 똑바른 정신을 가진 것이 미친 짓이래요!
그 중에서도 가장 미친 짓은 현실에 안주하고 꿈을 포기하는 것이라오!
- 뮤지컬 맨오브라만차 돈키호테 대사 中 -

‘개발원을 이끌어 가는 이사진’



김 선 대표이사
현)민주평통 자문위원
현)계명대학교 미디어아트 대학장
전)와이즈멘 대구지방장



김영달 부이사장
현)경북이주민센터 이사장
(주)미래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영대 이사
새대구 법무법인 변호사



신경목 이사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대곡제일내과 원장



신완식 이사
대구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
(주) SBM 상임이사



이경재 이사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



이상동 이사
전)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사무국장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사무국장



조갑식 이사
전)건강사회를 위한 안경인회 회장
현)아이클릭안경 대표



노경숙 이사
신영유치원장



우호성 이사
명리학연구가
전)매일신문기자, 경향신문 영남 본부장



윤승걸 상임이사
현)자원봉사능력개발원 원장
현)대구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 대표위원
현)전국족방상담소협의회 회장



● 표지이야기 ●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원봉사능
력개발원 식구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반복되는 삶 속에서 스스로를 잘 극복하며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꿈”을 가
진 사람일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조금은 힘들어
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능력개발원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발행일 2010년 3월

발행인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대표이사 김 선

편집인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사무국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3가 1371-6(우703-851)

Tel. 053)356-0465 Fax. 053)356-3496

메일 vongsas@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vongsas.org>

2010년 봄호 **춘풍들이 일구어 가는**
복지공동체



05

02 **쉽 표 말! 말! 말! / 개발원을 이끌어 가는 이사진**



08

04 **여는 시 해마다 봄이 되면 | 조병화**

05 **여는 글 작은 꿈들의 노래 | 윤승걸**

함께한 나날들

06 **법인의 지난 그림들 |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08 **쪽방상담소의 지난 그림들 | 대구쪽방상담소**

10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지난 그림들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12 **만평주민도서관의 지난 그림들 | 만평주민도서관**



12

특집 현장 활동 파헤쳐 보기

14 **일상에서 벗어나 음악 속으로 | 자원봉사능력개발원**

15 **천천히, 조금씩, 우리의 힘으로! | 대구쪽방상담소**

16 **북한이탈주민 공부방에는 희망이 있다.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17 **섬진강에서 보낸 하루 | 만평주민도서관**



17

개발원이 만난 사람들

18 **집이 생겼어요. | 지민겸**

20 **꿈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 조재희**

21 **나의 꿈은 동사다. | 김제인**

22 **손잡은 회원을 소개합니다.**

복지동향

23 **2010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함께해요

24 **일정소개**

살림살이

25 **법인 & 만평주민도서관 후원자 및 결산**

26 **대구쪽방상담소 후원자 및 결산**

27 **북한이주민지원센터 후원자 및 결산**



18

사랑을 나눠주세요.

28 **사랑을 나눠 주세요.**



해마다 봄이 되면

조병화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 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 해라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쉬임 없는 작업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 해라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 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
봄은 피어나는 가슴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 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나무 가지에서, 물 위에서, 뚝에서
솟는 대지의 눈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작은 꿈들의 노래



(사)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원장 **윤승걸**

요즘 날씨를 보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봄철에 나오는 하우스 농산물이 품질 면에서 질이 떨어지고 양적인 면에서는 수확량이 적어 농민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고 한다. 추운 날씨도 계속 이어져 4월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산행을 하다보면 눈 덮인 산야를 볼 때가 많다. 또한 번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 올 한해 또한 끝을 정리 할 때면 다사다난 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듯하다. 월드컵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각종 사회적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정리되지 못하고 들뜬 채로 한 해가 지나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인간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 하지 않았던가?

소식지 봄 호의 주제가 아마도 꿈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살다보면 누구나 길흉화복이 있게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한탄이나 포기나 절망이 아니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의 꿈을 키워가고 지혜롭게 그 길을 즐기자는 것이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봄여름가을겨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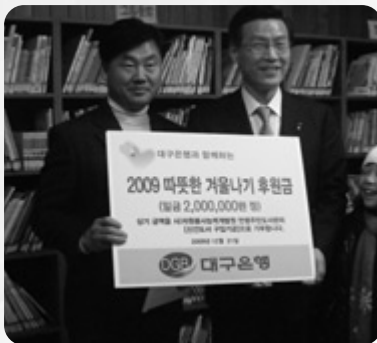
"어떤 이의 꿈"이라는 노랫말이다. 각자가 생각하는 꿈에 대한 해석이 사뭇 다르다. 노랫말은 점점 더 흘러나와 나 자신은 누구인지, 미래에 대한 나는 어떤 꿈을 꾸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치닫는다. 하지만 역시 결론은 꿈에 대한 희망이다. 꿈을 꾸지 않는 자는 꿈을 꾸고 있는 자가 가지는 희망에 대한 꿈임없는 열정과 갈망을 알지 못한다. 물론 각자가 꿈꾸고 있는 지향점은 다를 수 있지만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몸담고 있는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의 꿈은 무엇일까? 개발원의 역사도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과연 처음 가졌던 꿈을 얼마나 실현시키고 있는가? 초창기의 구성원들이 거의 없는 지금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의 구성원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그 꿈을 얼마나 이해하고 실현하고자 했던가? 물론 변화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쪽방주민, 새터민, 결혼이민자, 주민도서관)의 나눔 활동을 지향하고 지역사회의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단체의 역량강화와 내용의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나름 긍정의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개발원이 애초에 가치를 걸었던 "공공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자원봉

사단체가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유지·발전에 이바지 한다"라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는 지원 사업에 비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기관별 자원봉사활동은 활성화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자원 활동의 가치를 생산해내는 연구구조, 교육과 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제교류 등에서는 개발원의 목적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요도나 현안에서 다소 비껴나 있지 않았었나 생각해본다.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점에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개발원의 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지금도 개발원의 부설기관들이 잘 만들어가고 있는 정책생산과 연대활동과 연구활동 등을 지역사회 자원 활동의 가치창조와 프로그램개발의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작은 규모의 아카데미를 진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이미 작년부터 진행된 크고 작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하는 실천 활동과 연대활동을 하나로 묶어서,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 속에 조급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꿈의 결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큰 꿈에 대한 기대보다는 작은 꿈을 향해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법인의 지난 그림들



1. 2009년 12월 21일 : 대구은행 하춘수 은행장이 만평주민도서관에 방문 2009 따듯한 겨울나기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된 후원금으로 1년간 만평주민도서관의 신간구입을 위해 쓰여지며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만평주민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2009년 12월 28일 :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음악이 있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여느 송년의 밤 행사 때 보다 많은 내빈, 후원자, 회원가족들이 참석하였습니다. 2009년 한해 법인이 지나 온 발자취들을 돌아보며 다가올 2010년의 희망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보다 소중하게 재고되어야 할 가치들을 나누며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 2010년 1월 4일 : 새로운 시작이란 언제나 설레는 희망들이 넘실거립니다. 2010년 경인년을 맞이하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1월 4일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법인 이사회와 운영위원, 각 기관의 직원들은 한해의 소망을 품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발전된 내일을 위한 다짐들을 마음에 새기며 2010년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4. 2010년 1월20일 : 각 기관의 직원들이 동계직원연수를 가졌습니다. 2009년 사업을 결산하며 공과를 짚어보았고 2010년 주요사업과 계획을 공유하며 문제점과 전망을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인과 각 기관이 보다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답게!! 2010년 사업들을 일궈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초심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5. 2010년 1월 28일 : 6명의 이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40차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09년 사업실적 및 결산,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와 2010년 정기총회,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6. 2010년 2월 18일 : 4년 전 지역의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하고자 시작했던 구미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첫걸음이 많은 분들의 애정과 격려 속에 사)경북북이주민센터 설립 및 통일부와 경상북도가 지정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경북서북부 하나센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북 지역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7. 2010년 2월 22일 : 2009년 11월 7일 북한이주민지원센터 감사, 2010년 2월 22일에 자원봉사능력개발원과 대구쪽방상담소 내부감사가 있었습니다. 사업전반, 운영전반, 각종 행정부문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고 이창현 선생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8. 2010년 2월 23일 : 대구가톨릭근로사회관에서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 결산과 2010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고 법인운영에 관한 발전적인 제안과 의견들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정기총회를 통해 2010년 법인과 각 기관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발 합니다. 새롭게 인준 받은 남기정, 이창현 감사님의 활동도 기대해 봅니다.

쪽방상담소의 지난 그림들

■ 2009 11월 6일/2010년 3월 8일



지난 겨울
쪽방상담
소 3층에
서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실
시하였습
니다.

서구보건소에서 독감백신을 가지고 오셔서 쪽방거주인 총 32분이 접종을 하였으며 신종플루예방접종을 같은 장소에서 42명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쪽방거주인 모두 건강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2009년 11월 26일



전국 10
개 지역의
쪽방상담
소 협의 회
는 11월
26일 대
전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주거와 빈곤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창립선언문에서 “취약지역 주민들이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사회의 주거와 빈곤의 문제 등에서 더 큰 고민을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자 법인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2009년 12월 9일/ 12월 22일



동절기를 맞이하여 삼성 (쌀5kg, 라면, 참치, 스낵 등 830set, 속옷 830개) 그리고 KT&G 라면 700box를 쪽방지역을 방문하여 총 830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 나눔 활동을 통해 쪽방지역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2009년 12월 20일 ~ 12월 22일



반빈곤현
장 활동은
가난한 사
람에게 더
많은 빈곤
을 안겨다
주는 신자유주의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장으로 지역의 뜻있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빈곤 생활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현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는 신자유주의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장으로 지역의 뜻있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빈곤 생활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현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2009년 12월 23일



사람들은
연말에
친구, 친
지들을
만나며
즐거울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친구, 친지가 없는 쪽방인들은 연말이라고 해서 누구 하나 흥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작게나마 이분들을 모시고 한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2010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 쪽방거주인의 밤을 가졌습니다.

보냅니다. 하지만 친구, 친지가 없는 쪽방인들은 연말이라고 해서 누구 하나 흥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작게나마 이분들을 모시고 한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2010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 쪽방거주인의 밤을 가졌습니다.

■ 2010년 1월 13일



쪽방거주
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라
고 한복
의 명가
백년가약(황말선 대표)에서 이불, 전기장판 50set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백년가약(황말선 대표)에서 이불, 전기장판 50set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 2010년 1월 13일



대구지방
변호사회
에서 십
시일반으
로 모아
쪽방거주
인 따듯
한 겨울나
기 후원금
을 전달하
셨습니다.
큰 사랑을
모아주신
분들께
진심을 담
아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한 겨울나기 후원금을 전달하셨습니다. 큰 사랑을 모아주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10년 1월 15일



2009년
한해를
되돌아보
고 반성하
며 2010년
새로운 해
에 상담소
를 어떻게
이끌어 나
갈지 함께
고민을 나
누는 시간
을 마련했
습니다.

2009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2010년 새로운 해에 상담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2010년 2월 10일 ~ 12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상품권 700set(5만원권)을 지원하여 쪽방거주인에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 2010년 2월 25일

지난 2002년 7월부터 쪽방거주인들에게 김치 등 밑반찬을 후원해주시는 대봉교회 자원봉사자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10년 2월 25일



반빈곤네트워크 전체 단체가 모여서, 2010년 사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에 쪽방상담소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된 빈곤체험활동,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등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올 해에도 중점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2010년 2월 26일

쪽방상담소가 '2010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쪽방아저씨들이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혹 주변에서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이나, 일할 분을 찾고 계신 기업, 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2010년 3월 2일

2010년도 희망근로 사업을 통해 6분의 새로운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만평주민도서관, 나눔가게 그리고 새오름 고용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함께하는 식구들이 많아져서 든든합니다.

■2010년 3월 9일

전국 최초로 대구시에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역의 홈리스, 주거관련 연대단체인 주거권네트워크에서 함께 추진하여 제정된 이 조례는 향후 지자체가 쪽방거주인을 지원해야함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타 지역의 조례제정에도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0년 3월 15일

쪽방거주인의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연계 구축을 위해 간담회, 반찬만들기, 인문학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립·자활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0년 3월 24일

주거복지재단의 주최로 주거와 관련된 공공-민간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서 포럼을 가졌습니다.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정책대상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정책대상으로 포함하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3월 25일

새롭게 부임한 대구시 안국중 복지정책관과 서구지역의 민생현장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쪽방거주인 실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정부양곡 할인대상에 포함, 공공근로, 동절기특별자활근로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 등에 대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2010년 3월 25일



대구서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첫 회의가 서구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구지역 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서구지역의 20여개 사회복지관련 단체 실무자들의 협의기구로, 쪽방상담소의 장민철 국장이 실무협의체의 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25일



공동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인사를

다녀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였지만 산사의 은은한 정취를 느끼면서 모처럼 여행에 한껏 들뜬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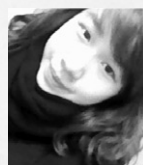
■2010년 3월 26일



2010년 3월 26일 전국쪽방상담소장님들이 대구

쪽방상담소에 모여 윤승걸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회장의 사회로 지역별 사업공유와 협의회 자체 사업 모색, 홈리스 법제정에 따른 협의회 차원의 준비 그리고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연수생 인사



김지연

안녕하세요. 대구쪽방상담소 5개월차 연수생 김지연입니다. 저는 현재 미술치료와 사회복지공부하며 상담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들께 웃음, 희망, 기쁨을 드리길 바라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지난 그림들

1. 「기획강좌」 남북관계 전망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지난 11월 4일 ~ 11월 12일 매주 수, 목요일 경북대학교에서 '남북관계 전망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이란 주제 아래 기획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21세기 국제정세와 한반도 평화, 동서독의 경험을 통해 본 남북한과 북한이탈주민, 남북의 당면현실 : 개성공단과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정착지원제도'란 주제로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사분들의 열강을 통하여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건강검진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지원으로 지난 11월 10일 ~ 11월 12일까지 4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내시경 등의 각종 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건강검진 3일 동안 수고해주신 건강관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소리예술단 공연 관람



12월 8일 소리예술단 공연 관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공연이 아닌 장애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한 장애예술인들과 예술인이 화합하여 이루어낸 공연으로 더욱 뜻 깊은 공연이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

었지만 우리에게도 노력하면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4. 통일전망대 기행

통일전망대 기행은 멀리서나마 그리운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기대하던 설악산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고수동굴의 웅장한 광

경을 볼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신 자원봉사자들 수고하셨습니다.



5. 공연관람

즐거운 공연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공연관람을 통해 바쁜 생활 속에 약간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 힘들고 어려워 주위에서 웃는 얼굴을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럴수록 활기찬 분위기로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늘어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 신경목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운영위원장 통일부장관상 수상

대구지역 북한이주민들의 든든한 벗. 대구지역 북한이주민들을 헌신적으로 진료해 주시고 북한이주민지원센터(대구하나센터) 직원들에게도 한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 이번에 값진 상을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7. 법률상담

2010년 1월 26일 법률상담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고 해결책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주민의 근심을 덜어주는 이러한 법률 상담의 기회가 늘어나 남한사회의 적응이 한결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8. 설명절 행사

2010년 2월 10일 설날을 맞아 대구에 정착하신 150여명의 북한이주민 여러분들과 조출하지만 다함께 모일 수 있었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한때를 즐겼습니다.



9. 산은 동계캠프

2월 19일(금)에서 20일(토)까지 산은사랑나눔재단 지원으로 북한이주민 대학생들과 예비 대학생들, 남한 대학생들을 위한 동계 계절학교가 펼쳐졌습니다.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흥미있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강사님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극복한 시련들을 나누면서 학생들은 큰 힘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알고 새로운 다짐을 갖게 된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여름에 진행될 하계 계절캠프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정/표

1. 최준 (경북대학교) - 익숙해져야 하는 대학 시스템
2. 한순영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전문 상담사)
- 대학 생활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
3. 오청아 (예류잡 본부장) - 대학생활은 보다 나은 취업을 위한 생존의 발판
4. 이항심 (대구은행 차장) - 미래를 위한 금융 노하우
5. Micong Klimes (주한독일대사관 1등서기관) - 미래를 만들어가는 당신들

10. 2010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정기총회 참석



3월 19일 민간단체연대 정기총회가 전북무주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사업보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사업보고 2010년 사업계획, 하나센터에 대한 발표회 등 다양한 주제로 전국의 민간단체가 모여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모임이 고향을 떠나와 정착한 북한이주민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입니다.

11. 자원봉사 간담회

3월19일 자원봉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북한이주민의 빠른 정착과 남한생활의 적응을 위해 힘써주시는 자원봉사자



와 함께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모임으로 북한이주민의 빠른 정착을 위해 힘써 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2. 신입직원소개



김경림

안녕하세요 ^^

저는 4년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김경림입니다.

저는 영남이공대학을 졸업하고 영광스럽게도 북한이주민지원센터(대구하나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새로운 사회에 첫 발을 내딛

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산, 따뜻한 마음을 총동원하여 초기 정착에서부터 사회생활 적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손해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2월에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북한이주민지원센터(대구하나센터)와 인연을 맺게 된 손해란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들과의 생활에 있어 기대와 설렘이 앞섭니다.

앞으로 센터의 직원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자세를 낮추고 배우며, 한국사회에 오신 북한이주민들 한 분이라도 더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달비골 등반대회

3월 28일 일요일 대구 달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주민분들을 모시고 앞산 등반이 있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이주민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등반대회가 활기가 넘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많아져 반가운 얼굴을 자주 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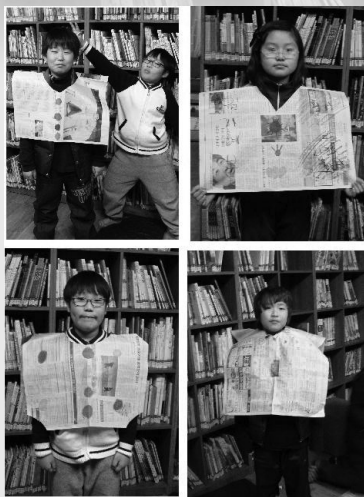


만평주민도서관

만평주민도서관 문화강좌 & 소모임

1. '책과 친해지기' 독서논술 교실

2009년 가을학기를 시작으로 현재 2010년 봄 학기 독서논술 교실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생각을 말하고, 손으로 만들고 체험하며 책과 친해지고 저마다의 꿈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2. 피아노 교실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피아노를 배우는 날입니다. 한 손에서 두 손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고, 동요 한 곡 정도는 거뜰히 연주 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면 조만간 만평주민도서관에서 멋진 피아니스트가 탄생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3. 눈으로 배우는 역사답사 - 1월 탐라기행

1월 18일~20일 2박 3일간 제주도로 첫 역사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산천을 그냥 그대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만으로도 여행할 까닭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4.3 기념관이나 해녀박물관을 다녀오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은 모진 역사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내 슬픔이나 기쁨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곧 내 역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탓에 역사답사로 떠나는 여행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단계를 넘어서서 지적인 만족감과 카타르시스까지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눈으로 배우는 역사답사 - 3월 섬진강 유역 답사

3월 27일 최첨판택 세트장, 차체험문화센터, 화개장터 등 섬진강 유역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답사를 통해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 아마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연을 눈에 가득 담고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진 않았을까? 이것에 더하여 역사 속의 인물을 자기 마음속에 담는 아이는 없었을까?

답사를 통해 아이들이 더 배우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5. '산 따라 물 따라' 산행모임

산행모임이 결성되어 비바람 몰아치는 주왕산을 시작으로 선운사, 눈 덮인 팔공산, 가지산, 노고단 산행과 남해 일주까지 매주 산 따라 물 따라 행복한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개인단위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산과 물과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만평주만도서관 카페에 놀러오세요 ★

다음카페 검색창에서 **만평주민도서관** 을 검색하세요.

<http://cafe.daum.net/manpyunglib>



일상에서 벗어나 음악 속으로

(사) 자원봉사능력개발원 기획실장 지민겸

작년 12월28일 ‘음악이 있는 송년의 밤’ 행사가 열렸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모두가 제 각각의 관점을 가지듯 한해를 보내는 그 시점에 서면 사람들 마음의 풍경은 가지각색이다. 후회가 더 많은 사람,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 나이를 한 살 더하는 일에도 호불호가 갈릴 것이고 지난한 일상사의 감회야 더 보탬말이 있을까? 그렇게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하나 둘 모여 들었다.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란 울타리 안이었다.

해는 빨리 기울었고 겨울의 검질긴 저녁 어스름은 애잔한 감상의 자락을 드리웠으니 ‘작은 음악회’가 ‘송년’이라는 주제에 무척이나 걸맞는 풍경 하나를 만들어 주리라 기대는 크게 빛나가지 않았다.



양선현 선생님 외 현악4중주 팀, 만평주민도서관 강좌를 통해 피아노에 갓 입문한 박남건 초짜 연주가와 꼬마 바이올린리스트 윤동민군, 추영경 성악가가 속속 도착하며 어수선하고 분주한 움직임들 위로 선율

을 실어주는 가운데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2009년 송년의 밤은 그렇게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행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해를 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되고 내빈들의 인사, 그리고 감사와 격려의 시상, 본 행사인 음악회는 꼬마 연주가의 바이올린 연주로 시작하여 똥똥똥똥 초보 피아니스트의 캐럴 연주, 아름다운 노래와 김천시향의 현악 4중주까지.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송년의 밤에 함께한 분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다.

‘함께’라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지내며 일상을 관통해 온 우리는 그 시간 ‘함께’ 송년의 밤을 보냈다. 흩어진 채로 각각의 삶을 일구며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닮아 있는 가치와 전망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살고 있었구나 싶었다.

어느 시인이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고 노래했다. 지난 시간들이 흘러가버리고 소멸해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 해온 우리들 안에 온축 蘊蓄되어 서로를 지탱하며 우리들이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터 잡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켜켜이 쌓여갈 우리들 모두의 시간이 지금도 흘러 보태지고 있다.

천천히, 조금씩, 우리의 힘으로!!



대구쪽방상담소 팀장 강정우

자조모임이란?

공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비전문적인 집단 활동을 함으로써 집단성원 개개인이 도움을 얻는 조직을 말한다.

저희 쪽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무료급식을 이용하고, 만들어진 밑반찬을 이용하시는 몇몇 분들은 방 안에서 점점 양념류와 취사도구가 줄어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 급식이 없는 날에는 그저 굶기도 합니다. 장애인복지도 이제는 '재활'이라는 말 보다는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듯합니다. 그러한 자립생활이라는 말은 누군가 해주는 것이기 보다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를 더욱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소에서도 2010년부터는 "자조모임조직 및 지역자원체계구축"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작게나마 가지고 있던 힘을 마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단 고민나누기, 인문학 강좌, 반찬 만들기, 자원봉사자 양성 등 어울리고, 생각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줍니다. 상담소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자원, 네트워크를 마련합니다.

자조모임은 누가 모임을 조직하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고 참가자를 모집하면 참가자들은 상담소에서 000한다는데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하면서부터 행위의 주체가 스스로가 아닌 상담소가 되면서 자조모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조모임을 조직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인

식하고 해결의 의지가 생기는 데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봅니다. 천천히 안내해 드리고, 기다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소와 함께 주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오름 고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이 건설일용직(흔히들 '노가다'라고 하죠)에 종사하시는 쪽방거주인들,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들, 그리고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드리기 위해 새오름 고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새오름고용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위탁운영 (취업 알선 및 취업성공수당 지원)
- 직업훈련과정 안내 및 연계(국비 계좌제 훈련과정)
- 각종 공공일자리 정보제공(희망근로, 공공근로, 조 건부자활근로 신청 등)
- 기타 각종 복지정보 제공 및 지역 복지자원 연계 활동

주변에 취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새오름고용지원센터로 안내를 해주세요.

특히, 본 센터는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하신 분들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도 가능하니깐 일단 전화주세요~~~

☎ 문의전화 : 053-356-3494(담당 : 장민철)



북한이탈주민 공부방에는 희망이 있다!

북한이주민지원센터(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간사 김제인

요즘 토요일이 되면 북한이주민지원센터는 평소보다 더 시끌벅적하다. 그 이유는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는 많은 공부방이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에 열정을 보이는 학생들로 가득한 센터에서는 이들로부터 활기가 느껴진다.

센터의 공부방은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학업 보충을 위해 2008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다. 공부방을 통해서 학교나 학원 강의를 듣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복습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내용으로 보충을 받기도 한다. 처음에는 영어 공부방으로 시작해 현재에는 8개의 공부방이 매주 월, 수, 금, 토요일에 운영되고 있다. 공부방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어, 국사, 그리고 수학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A-B-C 부터 배우는 기초 영어반, 1단계 문법을 다루는 A반, 그리고 2단계 문법을 다루는 B반, 독해와 기초 토익을 다루는 C반,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회화반이 있다.

모든 강의는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책임감 있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어 공부방 선생님들이 모여 영어 수업들을 체계화 하고자 모임을 가지고 논의 한 뒤, 단계별로 구성된 5개의 영어 공부방으로 개편이 되었다. 선생님들의 의견으로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공부방 참석률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4월부터 출석 결과에 따라 출석률이 가장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관심이 공부방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발전과 개선을 가져오는 큰 힘이다.

공부방은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있어 큰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공부방에 나오는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친해지고 서로 격려하며 이해해주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한 커뮤니티에 속해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기도 한다. 센터 직원들도 공부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보며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학생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마련 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해 시작된 프로그램이 많은 발전을 통해 더 체계화 되었고 활성화 되었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강사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공부방에 더 많은 기대를 가져본다.

북한이탈주민 공부방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섬진강에서 보낸 하루

인지초등학교 6학년 구영웅

토요일 아침 동생과 함께 섬진강 답사여행을 갔다. 밤에 엄마가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놀다가 늦게 자는 바람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다. 답사여행 대신 잠자면 안 되느냐고 했다가 엄마가 꼭 가야 한다고 하셨다.

출발하는데 까지 엄마가 데려다 주셨는데 거기서 우리 반 친구 현구를 만났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려니까 쑥스러웠지만 엄마가 섬진강 시인이라는 김용택 선생님의 시도 들려주시고 섬진강이 맑고 좋다고 하시길래 기대도 좀 됐다.

처음에 간 곳은 옛날 집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었다. 한옥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었다. 책에서 볼 때는 한옥집도 좋을 것 같았는데 진짜로 보니까 크기도 작고 화장실도 없고 해서 불편할 것 같았다. 그곳에서는 우리에 토끼와 닭이 있었다. 토끼 우리에 가서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토끼가 콧코 깨물었다. 닭한테는 지푸라기를 넣어주니까 또 콧코 찢었다.

한참을 가다보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내 동생 본웅이가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찾으러 가셨다. 선생님이 동생을 찾으러 간지 10분쯤이 지났는데도 안 와서 나도 동생을 찾으러 갔다.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선생님도 동생도 친구들도 없었다. 우리 일행들을 놓치고 홀로 길을 잃었다. 그래서 그냥 차가 있는 곳에 가니까 동생과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있었다. 알고 보니까 내가 길을 잃은 것이었다.

다음은 재첩국을 먹었다. 재첩은 쓴맛 때문에 맛이 없어서 반도 못 먹었다. 순두부찌개에 들어있을 때는 맛있었는데 이상했다.

세 번째로는 녹차 마시는 법을 공부하는 곳에 가서 손님에게 녹차를 대접하는 법과 티백을 맛있게 먹는 법을 배웠다. 나도 집에서 엄마랑 자주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는 법이 좀 복잡하고 예절이나 자세를 많이 지켜야 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섬진강인데 거기서 섬진강 물에 손도 씻고 물도 직접 마셔 보았다. 참 깨끗했다. 난 물이 시원해서 더 좋았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말한 섬진강 시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 옆에 화개장터도 구경 갔다. 꼬치, 엿, 과일, 채소, 생선, 장난감 등 여러 가지 물건을 팔았다. 난 거기서 꼬치를 먹었다. 화개장터는 전라남도 구례와 경상남도 하동사람들이 모여서 5일마다 시장이 서는 곳이라고 엄마가 말씀해주셨다. 노래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다.

돌아오는 길에 들른 휴게소에서는 통감자를 먹고 껌도 샀다. 동생이랑 나누어 먹었는데 맛이 꿀맛이었다. 선생님이 쓴 다며 감자를 더 사 주셨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답사에 대해 물으셨다.

나는 섬진강 물에 손 씻고 물먹은 게 제일 좋았다고 했다. 엄마는 김용택 선생님이 쓰신 여름이라는 시를 들려주셨다.

우리반 여름이
우리반에 여름이
가을에도 여름이
겨울에도 여름이
봄이와도 여름이
우리반에 여름이
여름내내 여름이

교과서에 나오는 신데 엄마가 다시 들려주시니까 더 재미있었다.

늦게 와서 힘들었지만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

매입임대주택입주자를 만나다. - 집이 생겼어요.



1000만원 ÷ 100만원 = 꿈
꿈의 금액! 1000만원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주세요.

봄 날씨가 광년(?) 치맛자락 같다는 말이 있지만 유난스레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는 2010년의 봄.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모처럼 맑고 따듯했다. 길어진 해가 여전히 새싹들의 기지개를 채근하던 일요일 오후, 동네는 차분하고 여유로웠다.

작년 초겨울 같은 시기에 동년배의 세 어르신들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원룸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대명동 앞산 끝자락에 자리 잡은 같은 건물의 원룸에 이웃으로 생활하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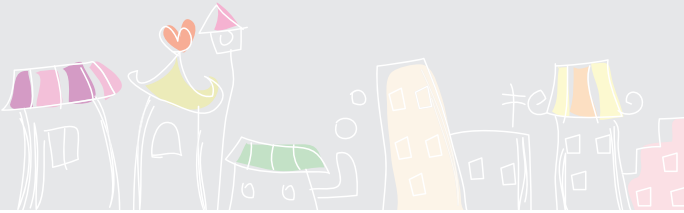
짧게는 6년 길게는 십여 년의 쪽방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2층 어르신 한 분의 집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살아온 사연들은 70평생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녹녹치 않았고 또 그만큼 소회도 남달랐지만 원룸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얻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세분 모두 만족해하고 계신 것만은 분명해보였다.

지난 한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업무를 인계받고 만난 분들의 모습은 한결 같았다. 신청을 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처음 집을 보러 동행하게 되면 소개받은 집을 나설 때 모든 분들은 “와~ 내가 살던데 비하면 완전 호텔이네 호텔~” 누가 대본을 짜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말들을 하실까? 신기하게 생각했었다. 이 하늘 아래서 쪽방이 아닌 자기만의 공간을 가진다는 설레임, 그리고 보다 나은 주거공간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의 만족감은 헤어질 때 그분들의 뒷모습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결 가볍고 힘차게 걸어가는 그분들의 발걸음은 내 집, 새로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이며 더 많은 분들이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세상일 모두가 한가지이듯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을까? 어르신들은 달라진 주거환경 속에서의 어려움 또한 피력하였다. 초겨울 입주 후 난방에 대한 경험이 없으셔서 도시가스 비용이 10만원을 훌쩍 넘겼었던 일, 낯선 이웃과의 소소한 갈등, 생활비를 가능한 절약하려는 노력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외로움이라고 한목소리를 내셨다.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 밖과는 단절되는 고립감이 크다는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같은 연배의 세분이 서로 연락하며 동무처럼 지내기에 조금은 덜하지만 이어져 나온 이야기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어떤 집단의 취약성은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어떤 사회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이로 인해 장애를 느끼고 어떤 사회는 그렇지 않다. -중략- 어떤 사회의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장치도 더 잘 갖추고 있다. 이것은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는 사회가 대응하기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주거지원사업, 2010년 주거복지 정책포럼 발표문 중 일부 -



어르신들이 느끼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의 문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사회 양극화, 노인 일자리 문제와 개인의 자아실현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적 현상과 난제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조금은 일반론적인 대답이 되겠지만 결국 이 사회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상대적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할까를 고민하고 그들의 삶을 편견 없이 지지하는 성숙한 분위기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우선적인 과제임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시종 밝았다. 최장 10년 동안 생활의 근거지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생겼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세분 어르신들의 공통된 어려움은 한편으로는 작은 바람이기도 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서고 싶다는 의지, 근로의 욕구, 보다 안정적이고 싶은 바람, 그리고 지금 생활 하고 있는 '집'이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까지 어르신들은 지금의 '집'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꿈'을 가지고 계셨다. 비단 세분의 어르신들 뿐 아니라 원룸에 입주한 모든 분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2010년 3월 현재, 대구쪽방상담소를 통해 원룸에 입주한 쪽방거주인은 24가구이다. 또 입주를 희망하며,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누구에게나 '집'은 단순한 거주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쪽방거주인 분들이 '집'이라는 '꿈'을 꾸고, 그 '집'에서 다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으면 한다.

2007년 6월 국정현안정책회의에서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확정 후 2007년 9월 국토해양부에서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지원업무처리지침」을 마련,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출연·설립한 주거복지재단에서 사업 위탁 시행되고 있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주거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부설기관인 대구쪽방상담소는 2009년부터 이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를 위한 원룸 매입임대 사업을 실행해오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주거취약 대상자에게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보장 및 입주자 취업알선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현 하는데 있다.

대구쪽방상담소에서는 2010년 3월 현재, 총 24가구가 이 사업을 통해 원룸에 입주하였다.

〈임대조건〉

(원룸)매입임대 대상자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임대보증금	100만원(보증금 전액 월세 전환 가능-연 8%)
월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약 6~9만원)
임대기간	최초 2년,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최장 10년

※2009년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를 위한 원룸매입임대 사업의 보증금은 본인부담 50만원에 현,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보증금 50만원을 지원하였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 지원제도가 소멸되어 입주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되었다. 본인부담금액의 증가로 인해 입주에 어려움을 상담하는 쪽방거주인들이 있어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부설 대구쪽방상담소는 원룸매입임대사업을 위한 기금마련을 고민하며 힘쓰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은 전액 원룸매입임대사업에 한정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정리 : 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지민검**



조재희
경북이주민센터 사무국장

꿈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올해로 37세를 맞은 나에게, 두 아이의 엄마인 나에게, 한 직장에 꼬박 10년째 일하고 있는 나에게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래 꿈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자라는 아이들이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새내기들처럼 무엇을 시작하는 이에게 어울리는 말인 듯한데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되어진 나와 같은 이에게 꿈은 정말 꿈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는 어려서부터 막연하게 꿈꾸는 것들이 있었다. 지금 하려면 절대 하지 않을 꿈들..

첫째,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왠지 성공을 이야기하고, 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옳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듯해서 내린 꿈이었지만, 그 꿈 덕에 어쨌든 지금 나는 12년이 넘게 사회복지현장에 살고 있다

둘째, 얼굴 잘 생기고, 키 크고, 돈 많은 사람보다는요.. 마음씨 어질고 내가 하는 무엇이든 묵묵히 지켜주는 남자 좋지 않아요??? (오 마이 갓.. 무슨 주술도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져버렸다.)

셋째, 주일학교 교사시절, 유난히 귀여워한 형제가 있었다. 헤어질 때 눈물까지 흘리며 애뜻하게 이별했던 두 녀석.. 저런 아들들 갖고 싶다했던 무심코 뱉은 그 말처럼 나는 지금 두 아들의 엄마이다.

..... 어디 그 뿐이겠는가

지금의 나.. 현재의 내 모습은 가끔은 겁이 날 만큼 내가 꿈꾸어 오던 그 모습 그대로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몇 해전 크게 히트한 책 시크릿의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다.

구체적으로 꿈꾸는 것들은 꼭 이루어진다는 현장에서 만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나를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내 모습도, 직업도, 경제적 상황도..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꿈꾸는 자는 마술과 같이 혹은 기적과 같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것은 마술도 아니고 기적도 아닌 살아온 개인의 삶의 결과물임을 잘 알고 있다.

서두에 나와 같은 이가 꿈꾸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하고 시작은 했지만, 사실 나는 이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새로 나오는 신곡 몇 곡 정도는 자연스레 익혀지는 후배들과 아이들과 교감하며 사는 넉넉한 마음의 40대와 50대를 그 때가 되면 다시 아주 구체적으로 60대와 70대를 그려볼 것이다.

나의 꿈은 동사다.



김제인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간사

한국을 입국한지 8개월이 되어서도 가끔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재미교포인 나는 미국에서 국제관계대학원 졸업과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나 제인은 한국에 있다. 그것도 대구에. 대학원을 휴학하고 한국에 일 년 정도 와서 인턴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만해도 대구로 올 생각은 전혀 없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북한이주민들의 정착 과정을 배우겠다는 생각 외에는 별 생각과 대책 없이 한국에 왔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었지만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 배우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였다.

나는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저런 워크숍, 심포지엄, 회의들을 다니며 인맥도 쌓고 머리로도 배우고, 초기정착을 다니며 몸으로도 배우고 있으며, 새터민분들, 센터, 법인식구들을 만나면서 마음으로도 많이 배우고 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신기하다.

글로도 쓰기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 나의 꿈은 하버드 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한국 어린이들이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고등학생이 되어서 나의 꿈은 하버드가 아니더라도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었다. UCLA를 입학한 후 난 나의 꿈을 이뤄서 당황스러웠다. 꿈을 이룬 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었나? 나는 몰랐고, 몰라서 답답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몰랐다. 장기적인 꿈이 없어서 난 나를 알아가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내 시야를 넓히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을 발견하기로 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당시 꿈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의대를 진심으로 가고싶지 않았기에 과학 수업들은 말

로만 공부하며 로스앤젤레스 시의원 선거 활동을 하고 학교 한국문화 동아리를 통해 풍물에 빠져들었다. 전공을 바꾸고 학교 동아리 회장도 맡으며 한인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거의 다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내 한국어 실력을 더 향상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대학을 졸업한 뒤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했다. 공부를 시작한지 2년째 되던 해에는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턴도 하며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결국에는 새터민들의 정착에 관심을 가져서 국제관계대학원을 입학하고 한국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가서 보니 뭔가 부족해서 직접 한국을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는 지금 대구에 있다.

의사가 되려고 했던 그 때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 결과, 나는 소중한 것을 배웠다. 나의 꿈은 명사가 아니다. 나의 꿈은 동사다. 나는 많은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직업이 없다. 난민 정착 관련 일을 했으면 하지만, 그것조차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자기의 가치와 잠재력을 깨닫는 것이 나의 꿈이다. 하지만 이것은 노력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꿈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한다. 그게 어떤 직업, 역할로 이루어지든 상관없다.

그래서 더 더욱 부모님께 죄송스럽다. 빨리 직업을 정해야 부모님께서 안심하시고 이민을 가서 희생하신 대가를 느끼실 텐데. 하지만 나는 뻔뻔하기로 결심했다. 부모님께서 이민을 가신 이유는 나와 동생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스스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하고 물으면 난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다. “나는 꿈 중이다.”고.

새롭게 손잡은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강용기 꺾다은 권현익 김규진 김성호 김성훈 김시환 김영은 김영진 김영희 김은경
김현지 백우열 송다혜 송지영 우승봉 원동건 유정무 이동훈 이상윤 전종민 정희영
최경화 최규영 하민희(하상만) 함석호 현대숙 황석훈



앞만 보고 살았는데 직장동료 소개로 좋은 기회 일 것 같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회비 후원만 하였으나 시간을 내어서 좀 더 적극적인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상만(하민희) -



항상.. 입으로만 함께하다 이제야 마음으로 머리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네요. 항상 촌놈처럼 우직하고 부지런한 개발원의 식구가 되겠습니다.

- 김영진 -



가진게 적든 많은 사람사이 가장 중요한건 어떻게 만났던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 앞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규영 -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사랑인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마음속에만 있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를 생각하며 봄을 기다립니다.

- 김영희 -

한 사람에게 월 1만원, 2만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한 명, 두 명, 열 명, 백 명.....의 1만원, 2만원이 모이면 큰돈이 됩니다. 그렇게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쪽방거주인, 북한이주민, 다문화가족 등 지역의 소외된 분들과 함께하는 사업에 소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마음을 주시고 결을 내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래도록 같은 길 위에서 한결 같은 모습으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더 많은 후원자님과 손잡고 나아가길, 그래서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과 손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양 손에 후원자 한 명씩! 한 명의 든든한 후원자를 만들어 주세요!

2010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을 고용하여 해당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어 한의원·의과·치과간 협진이 가능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296)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급여가 42만 2000원(1인 가구), 71만 8000원(2인 가구), 92만 9000원(3인 가구), 114만 1000원(4인 가구), 135만 2000원(5인 가구), 156만 3000원(6인 가구) 등으로 인상된다.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40)

희망키움통장 지원(신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을 3년간 적립해 자산형성 용도로 지원한다.

☎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과
(02-2023-8200)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

기초노령연금 선정 소득 기준액이 혼자 사는 노인 64만 원, 노인 부부 108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 지급액도 4월부터 최고 14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10)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9개월간 약제비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10)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심장질환·뇌혈관 질환자 본인부담률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는 등 본인부담률이 인하다.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의사 진단서에만 의존했던 방식이 사회복지전문상담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재판정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보장관리과
(02-2023-8985)



일/정/소/개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일정

- ▷ 4월 2일 : 자원봉사능력개발원 회원만남의 날
- ▷ 4월 6일 : 계명대학교 1%나눔 이윤구 총재 초청 특강, 늦은 7시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자원봉사 아카데미' 특강(전 적십자 총재 이윤구)
- ▷ 5월 1일 : 설립기념일 행사
- ▷ 4월~7월 : 내-외국인가정 자매결연사업

본 사업은 3년차 진행 중이며 다문화가족과 내국인 가족의 특별한 친구 맺기 프로그램입니다. 결연식(6월), 문화관람(5~6월), 문화탐방(6월) 등 특별한 친구와 예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www.vongsa.org 자료실 글 참고 or 053-356-0465로 문의해주세요~!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일정

- ▷ 4월 8일 : 137기 북한이탈주민 마중
- ▷ 4월 9일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간담회
- ▷ 4월 12일 ~ 4월 23일 : 하나센터 17기 교육
- ▷ 4월 26일 ~ 4월 29일 : 노동부 디딤돌 프로그램 3기 진행
- ▷ 4월 24일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기차 여행,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임진각 관람(추후변동가능)
- ▷ 매주 월, 수, 토 : 국어, 수학, 국사, 영어 공부방 진행
- ▷ 매주 화요일 : 공부방 강사, 직원 영어 회화 공부방 진행
-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NKP 풋살경기

대구쪽방상담소 일정

- ▷ 4월 2일 : 무료직업소개소 새오름고용지원센터 개소식
- ▷ 4월 : 자조모임 조직 및 지원자원체계구축 - 반찬 만들기 모임
- ▷ 4월 : 전국쪽방상담소 협의회 실행위원회
- ▷ 5월 : 자조모임 조직 및 지역자원체계구축 - 반찬 만들기 모임, 인문학 강좌
- ▷ 5월 : 공동작업장 나들이
- ▷ 5월 : 전국쪽방상담소 협의회 운영위원회
- ▷ 6월 : 자조모임조직 및 지역자원체계구축 - 반찬 만들기 모임
- ▷ 6월 : 전국쪽방상담소 협의회 실행위원회

만평주민도서관 일정

- ▷ ~ : 봄 학기 저학년·고학년 독서논술 교실
- ▷ 매주 수, 금요일 : 피아노 교실
- ▷ 5월 중 : 눈으로 배우는 역사답사
- ▷ 격주 토요일 : 산행모임

*역사답사, 산행모임 일정은 다음카페 <http://cafe.daum.net/manpyunglib> 검색창에서 만평주민도서관에서 확인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작은 마음 나누어

큰 보탬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 & 만평주민도서관 (2009.11.1~2010.2.28)

<든든한 후원자>

강용기 강정우 고희림 구봉주 구소라 곽종문 구본민 김건한 김광미 김규진
김규학 김동현 김명준 김민철 김병덕 김수정 김승기 김시송 김애화 김윤정
김은경 김정아 김정호 김종태 김진국 김현애 김현지 김형섭 김형조 김혜민
남기정 노진영 노교현 박미숙 박상우 박수진 박애선 박일숙 박정규 박종률
배지영 배혜정 백우열 서상인 서상화 서희용 성동건 손영자 송광용 송지영
양선현 여상희 오메삭 원영숙 원종구 유정무 유태영 윤대기 윤석권 윤중곤
양현정 은현숙 이경란 이광진 이권성 이권우 이대명 이동인 이동훈 이미경
이상미 이상윤 이세아 이수연 이임희 이정배 이정화 이진경 이진우 이찬상
이창현 이철희 이현정 장대환 장민철 장익주 전미경 전정옥 정만진 정미영
정용태 정은찬 정현오 조경락 조상호 조은정 조준우 조현정 주성민 지민겸
최경화 최기훈 최명순 최순자 최은경 최은지 추연재 태진철 하민희 함석호
허영길 허영철 현대숙 홍창영 홍혜옥 황경진 황선연 황성은 김영숙A 김영숙B
대구도시가스 대구은행 대구지방변호사회 민들레봉사단 영진전문대학 KT&G
(주)해성광학 665-6688대리운전

<이사회비>

김 선 김영달 김영대 노경숙 신경목 우호성 윤승걸 윤 영 이경재 이상동
조갑식

<만평주민도서관>

박애선 윤영희 전정옥 하춘수(대구은행장)
책&웃 물품후원 : 권수현 김영미 김현주 류원현 박남건 변영호 우명희 우창희
은현숙 이수진 이창호 정영조 정효진 최순자 황성재 허영철

앞으로도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수 입			지 출		
합 계		39,603,398	합 계		39,603,398
회비수입	일반회비	524,000	사무비	인건비	8,278,380
	cms회비	6,330,000		운영비	4,939,910
	특별회비	29,095,846		업무추진비	1,355,500
				소계	14,573,790
사업비	소계	35,949,846	사업비	교육훈련 사업	152,880
	만평주민도서관	1,339,369		출판홍보 사업	945,700
	소계	1,339,369		조직연대 사업	531,600
이월금	2009년 10월 이월금	1,476,271		후원의 밤 행사	1,157,000
	소계	1,476,271		특별행사&프로그램	1,693,800
잡수입	기타 잡수익	837,912		전출금	만평주민도서관
	소계	837,912	소계		5,953,930
			잔출금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구쪽방상담소	11,500,000
				만평주민도서관	500,000
			소계	16,900,530	
			잡지출	잡지출	-
			잔액		2,175,148

* 고맙습니다

대구쪽방상담소

(2009.11.1~2010.2.28)

작은 마음 나누어

큰 보탬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드든한 후원자>

강정우 고정일 구봉주 구선화 권우현 권충근 김기환 김동현 김미정 김봉환 김상금 김상현
김성팔 김성호 김승록 김시환 김영자 김영희 김인수 김일회 김삼숙 김종훈
김지연 김진국 김천호 김현수 김현준 김희준 남길식 남홍진 김잠숙 김중숙
박선배 박소연 박소현 박연경 박지수 박현수 박희웅 서병철 류현지 박귀자 박명숙
신상욱 신은정 양정희 염희자 오메삭 오진미 원동건 유재덕 유영미 이시은 이신영 이경미
이경희 이관태 이동욱 이명숙 이상록 이 수 이수남 이승미 이승민 이태수 임경범 임동훈 이혜자
이은경 이임희 이재심 이종돈 이주화 이준호 이지현 이창현 이태수 임경범 임동훈 이혜자
장민철 전미경 전상우 전인규 정광옥 정대식 정명숙 정석찬 정재훈 정희영 조선희
지민겸 진효림 천병우 천윤종 최규영 최민우 최병우 최윤종 최은경 현무용 홍수경 황말선
황진니 이주연(A) 이주연(B) 해피빈 이마트 광민복지재단

<물품후원>

- 대봉교회-김장 30박스
- 삼성그룹-쌀5Kg,라면10개, 햄, 참치 830SET 동내의 830EA
- 평화산업-백미20Kg*52포
- 감이슬-의류1박스
- 신주쿠구제의류-구제의류50벌
- 한국전력-급식용 보온밥통 2개, 국자2개
- 유기조-이불1벌(10만원상당)
- 익명 - 옷 1박스, 백미20Kg 6포
- 별을가꾸는사람들-양말230컬레
- 엄마손나눔카페-단감 1BOX
- 대구안경협회-안경테50개
- 변영호-의류신발2박스
- 전인규지인-겉50개
- 유대열-칼라푸드 매일반찬후원(월,일 제외)
- 백년가약-이불50벌, 전기장판86개
- KT&G-라면700박스
- 이자경-의류7박스, 전기장판1개 등
- 본가제사-설 차례상 1박스

<쪽방에 도움주시는 약국>

경명약국 경복약국 경성약국 광산약국 광장약국 극동약국 대보약국 대일약국 대지약국
동아약국 동재약국 문화약국 바른약국 백상약국 보건약국 보림약국 보성약국 수정약국
신성약국 안일약국 영남약국 우성약국 유명약국 유창약국 유한약국 이화약국 장수약국
제일약국 켄마약국 조인약국 천일약국 청심약국 추계약국 김스약국 평리약국 하림약국
한독약국 해인약국 건강당약국 굿모닝약국 뉴서대구역약국 메디팜서진약국 북비산약국
새달성약국 새세명약국 새술밭약국 새현대약국 서약국 신약국 신평리약국
온누리미소약국 장춘당약국 청암당약국 최약국한사랑약국

<쪽방진료소와 협력하는 병원>

M병원 김효정치과 약속약국 영남이비인후과 한영안과 한건호비뇨기과

수 입		
합 계		146,303,643
사업 수입	명절특식사업	740,000
	기획사업	13,450,000
	공동부업사업	2,826,840
	프로그램신청사업	7,000,000
	경과적일자리창출	2,909,770
	소 계	26,926,610
보조금 수입	보조금수입	55,900,000
	후원금수입	13,943,891
	소 계	69,843,891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34,569,131
잡수입	예금이자수익	
	기타 잡수익	3,461,011
	소 계	3,464,011
전입금	법인전입금	11,500,000
	소 계	11,500,000

지 출		
합 계		146,303,643
사무비	인건비	51,167,990
	운영비	14,959,142
	업무추진비	2,879,600
	소 계	69,006,732
	직업재활사업	2,826,840
사업비	생계지원사업	30,571,393
	기타사업	11,351,000
	프로그램신청사업	1,841,590
	화랑재활사업	2,366,340
	동절기나눔캠페인	3,400,000
	공중보건의 활동비	2,100,000
	경과적일자리창출	2,909,770
	소 계	57,366,933
잔 액		19,929,978

* 고맙습니다

북한이주민지원센터
(2009.11.1~2010.2.28)

〈든든한 후원자〉

강명숙	강경점	강상호	강정우	강지윤	강현숙	구봉주	권기태	권오현	권현익
김경민	김경호	김목유	김민경	김병진	김선왕	김성희	김성훈	김순득	김소복
김영달	김영문	김영진	김원태	김은희	김종식	김종훈	김진석	김창현	김학수
김현미	김현애	박대근	박수선	박연경	박영란	박종무	박주이	박지은	박현정
서재희	신경목	신미경	송다혜	여은상	오매삭	오수경	오현숙	유영학	유재영
윤명식	이강혁	이경미	이경연	이경희	이광운	이광호	이기도	이동원	이무연
이미영	이상록	이상윤	이선미	이성윤	이영미	이은희	이의석	이준호	이창현
이태준	이필순	이혁수	이현중	이화정	임부돌	임재양	임정숙	임호산	장미정
장민철	장연상	장진영	전종민	정미정	정상걸	정지균	조대성	조은주	조재희
조현정	주은경	진성준	채민수	채영주	천영익	최경호	최규영	최선미	최세호
최은경	최인식	최진웅	최태성	최해수	최효정	표현경	허영철	허지향	허진욱
허태정	현태숙	홍창영	황성은	황종구					

이마트영수증 후원 기독교장로회 달구벌교회 제일교회10여전도회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후원자분들이 저희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든든한 힘입니다.

수 입			지 출		
합 계		181,828,067	합 계		181,828,067
보조금	정착도우미	13,220,000	사무비	인건비	12,916,966
	공동모금회제안기획	18,600,000		운영비	4,900,900
	대구시민간경상보조금	4,000,000		업무추진비	5,394,755
	노동부민간협력	6,400,003		소 계	23,212,621
	산은사랑나눔	22,400,000	사업비	정착도우미	15,535,272
	지역적응교육센터	35,000,000		공동모금회제안기획	6,844,418
	연대사업	100,000		대구시민간경상보조금	4,000,000
	직장체험연수프로그램	800,000		노동부민간협력	3,442,000
	소 계	100,520,003		산은사랑나눔	10,830,609
후원금 수입	지정후원/행사후원	220,000		지역적응교육센터	53,110,680
	일반후원금	9,752,340		정보화교육	1,231,920
	CMS	6,000,000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	970,860
	소 계	15,972,340		연대사업	180,000
전입금/잡수입	법인전입금	4,900,530		직장체험연수프로그램	800,000
	예금이자	15,676		대구시사회단체보조금	1,400,000
	기타 잡수입	1,512,414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	1,950,000
	소 계	6,428,620		소 계	100,295,759
전월 이월금		58,907,104	후원금	지정후원금	220,000
			잡지출	소 계	220,000
				잡지출	5,961
				소 계	5,961
			잔 액		58,093,726

명단에 빠진 분이 있다면 법인사무국(053-356-0465)으로 연락바랍니다.
사랑을 보태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사랑을 나누기 주세요

‘친.친.더.하.기!!!’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친구가 친구와 더불어 하나 된 기쁨 나누기!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함께 먹고 싶고, 기쁨은 친구와 함께 나누고 싶듯이,
나보다 너를, 너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자랑할 만한 멋진 일도 친구와 함께해주세요.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들이 하나 둘 모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후원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친구를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도와주세요.

후원하시는 방법

ㄱ. 직접은행에 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	141-05-001390-3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법인)
대구은행	007-04-000442-7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대구쪽방상담소)
대구은행	038-05-002942-4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구은행	034-10-004274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주민도서관)

ㄴ. CMS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지 않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전화(053-356-0464)나 인터넷(www.vongsa.org)을 통하십시오.

이마트영수증을 모아주세요

모아주신 영수증 금액의 0.5%가 저희기관에 적립됩니다. 이마트에 배치 된 적립기에서 저희기관을 선택해서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1개월 이내의 영수증을 모아 우편이나 직접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적립하
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지던 영수증이 모여 큰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 쪽방거주인과 북한이주민에게 냉장고, 세탁기, 옷 등의 물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 만평주민도서관 책장을 꽉꽉 채울 ‘책’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053-665-6688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 1,500원이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으로 후원됩니다.
안전귀가! 사랑 나눔! 665-6688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생활 속에서 우리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